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일인 15일 광주시 서구 광주여자고등학교 시험장에서 수험생들이 요약집 등을 보며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올해 각종 악재 마음고생에도 차분한 수능

광주 시험지 유출·스쿨미투 파문 힘들었지만 최선 다해 준비 조용한 응원전 속 시험장 착각·지각생들 경찰 도움 받고 "휴"

15일 오전 7시 광주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5지구 5시험장) 정문 앞에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보는 선배를 응원하기 위해 학교 후배 20여명이 모여있었다. 하지만, 예년처럼 '파이팅' 등 힙한 구호를 동반한 활기찬 응원전은 찾아볼 수 없었다.

이 시험장은 지난 7월 중간고사 시험지 유출 파문을 빚은 사립고교 학생들이 수능 시험을 보는 교사장 중 한 곳으로, 열띤 응원전보다는 차분한 분위기로 선배들을 맞이했다.

후배들 중 일부는 정답을 잘 적으라는 의미를 담아 백제가 일본에 하사한 '칠지도'를 활용한 '수능 대박 칠지도(?)' 등 재치있는 문구가 적힌 손 팻말을 준비해 선배들을 조용히 응원하는 모습이었다. 후배들의 잔잔한 응원에 선배 수험생들도 긴장된 표정과 함께 작은 미소로 화답했다.

해당 학교 교복을 입은 한 수험생은 시험 소감을 묻는 질문에 "(시험지 유출 등) 학교 분위기와 상관없이 공부했다. 열심히

준비한 만큼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믿는다"는 말을 남기고 입실했다.

같은 시간 광주시 남구 대성여고 교사장도 광덕고 앞과 비슷한 분위기였다. 이곳은 '스쿨 미투'가 불거진 모 여고의 학생들이 시험 보는 교사장 중 한 곳이다. 후배 학생들은 선배 수험생들에게 초콜릿을 나눠 주거나 "시험 잘 보세요"라는 말로 힘을 실어줬다. 선배들은 "고마워"라는 짧은 말로, 후배들의 작은 정성에 감사의 마음을 표현했다.

올해 시험지 유출 파문, '스쿨 미투' 등 광주지역 교육계를 뒤흔든 사건들이 잇따라 터지며 고3 수능생의 면학 분위기가 어느 해보다 슬렁였지만, 수능 당일인 이날 하루만큼은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발휘하는 데 집중하는 모습이었다.

지역 교육계와 자치단체들도 올 한해 각종 악재로 마음고생이 심했던 고3 학생들을 격려하는 조용한 응원전에 나서 눈길을 끌었다.

이날 광덕고 인근에서는 장회국 광주시 교육감과 정종제 광주시 행정부시장 등이 교사·학생들과 함께 서서 '너의 꿈을 응원해', '수능 너의 꿈을 위하여' 등이 적힌 손팻말을 들고 수험생 응원에 동참해 좋은 반응을 얻었다.

이날 응원전에 나선 박형근(광주제일고) 교사는 "학생들이 1년 동안 잘 준비한 만큼 긴장하지 말고 평소 하던대로 자신의 실력을 잘 발휘했을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북구 우암동 경신여자고등학교(제26지구 제30시험장) 입구도 초겨울 추위에 아랑곳 않고 응원 인파로 붐볐다.

문정여고·살레시오여고 교사들은 "잘 이겨내라. 시험 잘 보고 와"라며 수험생들을 격려했고, 제자들은 "떨린다", "긴장돼서 울 것 같다"며 어리광을 부리는 모습도 보였다.

자녀를 교사장까지 배웅한 학부모 중 일부는 시험이 끝날 때 까지 교문 앞을 떠나지 못하기도 했다.

재수생 학부모 이시현(여·50)씨는 "작년 이맘때 딸을 바라다봤는데 올해 역시 얼떨떨하고 멍한 기분"이라며 "딸이 자신과의 싸움에서 잘 이겨내 원하는 대학에 합격했

으면 한다"고 심정을 전했다.

올 7월 '스쿨 미투' 사건이 터져 4개월 넘게 어수선한 학교 생활을 보낸 한 수험생은 이날 시험이 끝난 후 "한때 면학 분위기가 무너지기도 했지만, 결국 공부는 자신과의 싸움이라는 생각으로 친구들과 함께 마음을 다잡고 최선을 다했다"면서 "다행히 평소 좀 약하다고 생각한 수학시험을 실수없이 잘 본 것 같아 기분이 좋다"고 말했다.

시험장을 잘못 찾거나 지각한 수험생들을 대상으로 한 수송 지원도 설 새 없이 이어졌다.

북구 두암동 동신여고로 가야 하는 한 수험생은 경신여고로 잘못 입실해 마감 10분을 남겨 놓고 경찰의 도움으로 무사히 시험장에 들어 갈 수 있었다. 또 북구 일곡동에서 남구 봉선동 동아여고까지 아버지 차량을 타고 가던 A(18)군은 갑자기 바뀌가 펑크나 일곡지구대의 지원을 받기도 했다.

야간근무를 했던 만학도 B(38)씨는 늦잠을 자는 바람에 오전 7시58분 경찰에 도움을 요청, 문흥동에서 계림동 광주고까지 12분만에 도착해 시험을 치렀다.

김용희 기자 kimyh@kwangju.co.kr

광주·전남 사립유치원 '처음 학교로' 대거 참여

광주 97.1%·전남 85.5% 등록

유치원 온라인 입학관리 시스템인 '처음 학교로' 등록 마감에 맞춰 광주·전남 사립유치원들이 대거 참여했다.

15일 광주와 전남교육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등록을 마감한 결과 광주에서는

172개 사립유치원 가운데 167곳(97.1%)이 등록을 마쳤다. 한동안 30%대 등록률에 머물렀던 전남에서도 110개 사립유치원 중 94곳(85.5%)이 등록했다.

지자체 참여 유치원이 광주 1곳, 전남 2곳에 불과했던 점을 고려하면 비약적인 증가다. 교육청의 압박과 두려가 마감일을 앞

두고 유치원의 참여를 끌어낸 것으로 보인다.

특히 방학 60일로 연장, 운영시간 단축 등 방침을 일방적으로 통보해 학부모들의 반발을 샀던 광주 남구 모 유치원도 등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학 기간과 운영시간을 기존대로 유지하라는 시정 요구도 받아들였다고 광주시교육청은 전했다.

각 교육청은 끝까지 등록하지 않은 유치원은 우선 감사대상으로 하고 재정 지원

차등, 목적사업비 지원 배제 등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전남도교육청 관계자는 "유치원에서 처음 학교로에 참여하고 싶어하면서도 한유 총 지회 눈치를 보거나 심지어 참여 유치원에 연락해 탈퇴를 종용한다는 민원도 있었다"며 "공공성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우선으로 감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끼 있다' 위안부 피해자 모독 전 순천대 교수 2심도 실행

강의실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를 모욕하는 발언을 한 전 순천대 교수가 항소심에서도 실행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 형사4부(부장판사임주혁)는 "위안부 피해자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26일 순천대 강의실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해 "일본에 그 미친, 끔찍한 여자들도 있을 거고 학생들도 원래 끼가 있으니까 끌려간 것, 따라다니 거야"라며 허위 사실로 명

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그 할머니들이 사실은 상당히 알고 갔어. 내가 보기에 전혀 모르고 위안부로 간 것은 아닐 거다. 이 말이야"라고 발언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국립대학교 교수인 A씨가 강의 도중 허위사실을 적시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 복구도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시민단체인 순천평화나비는 지난해 9월 검찰에 A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5000만원 주웠다가 6일간 고심...50대 결국 입건

수천만원의 현금다발이 든 손가방을 주워서 쟁긴 50대 자영업자가 형사처분을 받게 됐다.

광주 광산경찰은 15일 임모(51)씨를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임씨는 지난 2일 오후 4시께 광산구 수안동에서 운전 도중 도로 위에 떨어져 있던 이모(32)씨의 손가방을 주워 경찰에 신고하거나 주인을 찾아 돌려주지 않고 가로챘다. 손가방 안에는 이씨가 자동차를 사려고 은행에서 찾은 현금 5800여만원이 들어있었다.

이씨는 은행에서 일을 보고 나와 자동차 지붕 위에 돈이 든 손가방을 올려둔 채 다음 목적지로 이동하는 바람에 거액이 든 손가방을 분실했으며, 신고를 접수 받은 경찰은 6일간의 추적 끝에 임씨를 붙잡았다. 임씨는 돈을 집에 보관하면서 어떻게 처분할지 고심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평범한 시민인 임씨가 우연히 주운 큰돈을 보고 유혹에 빠진 것 같다"며 "피해품을 모두 회수했어도 형사처분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김용희 기자 kimyh@kwangju.co.kr

"PC방 살인 김성수 심신미약 아니다"...정신감정 결론

법무부는 "서울 강서구의 한 PC방에서 아르바이트생을 잔혹하게 살해한 피의자 김성수(29)의 정신감정 결과, 심신 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고 15일 밝혔다.

법무부는 "감정 결과 김성수는 우울증 증상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았으나 사건 당시의 치료경과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정신병적 상태나 심신미약 상태에 있지는 않았던 것으로 판명됐다"고 설명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지난 22일 국립법무병원(공주치료감호소)에 입소한 김성수의 정신감정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실시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김성수의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가 아니었다는 의학적 결과가 나오면 따라 법정에서도 재판부가 정신병력이 범행과 연관이 있다고 판단할 개연성이 줄게 됐다. 정신감정을 받은 김성수는 조만간 사건을 수사 중인 강서경찰서로 다시 이송될 예정이다.

연남뉴스

"지켜줘서 고마워요" 초등생 320명, 경찰관에 응원 손편지


○광주지역초등학생들이 평소 자신을 보호해주는 경찰관들에게 고마움을 표하는 내용의 손편지를 320개를 전달해 눈길.

○15일 광주북부경찰에 따르면 이날 광주 두암초등학교 학생들이 여성청소년과를 방문해 학교폭력 예방 활동과 관내 치안 활동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담은 손편지 320통을 전달했는데, 손편지에는 "학교폭력 없는 평화로운 학교를 만들어 주셔서 감사하다", "진절하소 우리들 위험으로부터 지켜주셔서 고맙다" 등

경찰관에게 고마움을 표시하는 내용이 가득 적혀 있었다는 것.

○초등학생들이 전달한 손편지에는 '수사를 해 법인을 찾는 똑똑한 형사님들이 정말 멋지다', '앞으로도 우리가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지켜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등 경찰관을 응원하는 글도 가득했다. 양우천 광주북부경찰서장은 "학생들에게서 감사편지를 받으니 큰 보람을 느낀다. 앞으로도 시민의 안전 확보는 물론 학교폭력 없는 학교를 만들어 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

김용희 기자 kimyh@kwangju.co.kr



지오옥션 부동산 중개법인(주)

"20년 경력의 조여사 010-6211-4585"

경,공매 컨설팅

수익형 추천 물건

- ★ [건물] 광주 동구 금남로5가(중심상업지역)
토지:912,50㎡(276평) 건물:1,477,64㎡(446.9평)
지하1층 지상4층 **매매가:48억** 대로변, 전시효과최상
- ★ [건물] 광주 광산구 송정동 (일반상업지역)
토지:1,349㎡(408평) 건물:1,350,03㎡(408.3평)
지하1층 지상4층 **매매가:61억** 8차선대로변
- ★ [건물] 광주 북구 일곡동
토지:7,662.4㎡(2,317.8평) 건물:6,864.61㎡(2076.5평)
지상3층 **매매가:105억** 아파트밀집지역,복합사우나건물 (보증금 4억3천, 월수입 2천7백)
- ★ [건물] 광주 서구 농성동 (준주거지역)
토지:3,104.6㎡(939.1평) 건물:11,543.18㎡(3491.8평)
지상9층 **매매가:100억**
대로변, 지하철역세권, 전시효과 최상, 수익률최상
- ★ [건물] 광주광역시 광산구 선암동(근린상업지역)
토지:2,485.20㎡(751.77평) 건물:5,802.89㎡(1755.37평)
지상3층 **매매가:85억** 선운지구 상권밀집지역 (보증금 6억, 월수입 3천)

병원

- ★ [의료시설] 광주 동구 학동
토지:619,62㎡(187.4평) 건물:1,458,86㎡(441.3평)
지하1층 지상4층 **매매가:30억** 아파트 밀집지역
대로변, 조대병원인근
- ★ [의료시설] 광주 동구 대인동
토지:514,40㎡(155.6평) 건물:2,143,08㎡(648.2평)
지하1층 지상5층 **매매가:32억**
약국, 병원, 업무시설 적합
- ★ [의료시설] 광주광역시 광산구 우산동
토지:580,40㎡(175.57평) 건물:2,889,86㎡(874.18평)
지하2층 지상6층 **매매가:37억**
상권밀집지역에 위치, 주변 아파트밀집지역

토지

- ★ [토지] 광주광역시 북구 삼각동
토지:5,324㎡(1611평) **매매가:59억6천만**
투자가치 최상, 도로변 광고효과 좋음
- ★ [토지] 전라남도 여수시 주삼동
토지:9,157㎡(2770평) **매매가:83억1천만**
도로 인프라 최고, 공장이나 물류창고 적합
- ★ [토지]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토지:1,948㎡(589.27평) **매매가:29억4천5백만**
신양파크호텔에서 무등파크호텔가는 도로의 카페거리에 위치, 투자가치최상

광주·전남 병원건물(요양, 한방)매매·임대 다량보유, 사우나건물 전문상담

대표공인중개사 전민규 062-714-2251